

2024년 4월 7일. 7 April 2024  
금문교회 주일예배. GGPC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43 "You have heard that it was said,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nd hate your enemy.' 44 But I say to you, Love your enemies and pray for those who persecute you, 45 so that you may be sons of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For he makes his sun rise on the evil and on the good, and sends rain on the just and on the unjust. 46 For if you love those who love you, what reward do you have? Do not even the tax collectors do the same? 47 And if you greet only your brothers, what more are you doing than others? Do not even the Gentiles do the same? 48 You therefore must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마태복음 Matthew 5:43-48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온 세상의 모든 교회를 승리하게 하사,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과 존귀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온 세상 모든 교회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찬식 Holy Communion

1. Who has believed what he has heard from us? And to whom has the arm of the Lord been revealed? 2. For he grew up before him like a young plant, and like a root out of dry ground; he had no form or majesty that we should look at him, and no beauty that we should desire him. 3. He was despised and rejected by men, a man of sorrows and acquainted with grief, and as one from whom men hide their faces, he was despised, and we esteemed him not. 4. Surely he has borne our griefs and carried our sorrows; yet we esteemed him stricken, smitten by God, and afflicted. 5. But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upon him was the chastisement that brought us peace, and with his wounds we are healed. 6. All we like sheep have gone astray; we have turned—every one—to his own way;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 7. He was oppressed, and he was afflicted, yet he opened not his mouth; like a lamb that is led to the slaughter, and like a sheep that before its shearers is silent, so he opened not his mouth. 8. By oppression and judgment he was taken away; and as for his generation, who considered that he was cut off out of the land of the living, stricken for the transgression of my people? 9. And they made his grave with the wicked, and with a rich man in his death, although he had done no violence, and there was no deceit in his mouth. 10. Yet it was the will of the Lord to crush him; he has put him to grief; when his soul makes an offering for guilt, he shall see his offspring; he shall prolong his days; the will of the Lord shall prosper in his hand. 11. Out of the anguish of his soul he shall see and be satisfied; by his knowledge shall the righteous one, my servant, make many to be accounted righteous, and he shall bear their iniquities. 12. Therefore I will divide him a portion with the many, and he shall divide the spoil with the strong, because he poured out his soul to death, and was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s; yet he bore the sin of many, and makes intercession for the transgressors.

이사야 Isaiah 53:1-12

오늘 우리는 성찬예식을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헛된 세상, 헛된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며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 만나를 주셔서 먹이시고, 반석을 깨뜨리시고 맑은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동행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그 큰 뜻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 하나님을 신뢰하기 Trust In God

사도행전 Acts 23:12-35

12.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When it was day, the Jews made a plot and bound themselves by an oath neither to eat nor drink till they had killed Paul.

13. 이같이 동맹한 자가 사십여 명이더라.

There were more than forty who made this conspiracy.

14.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They went to the chief priests and elders and said, “We have strictly bound ourselves by an oath to taste no food till we have killed Paul.

15.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Now therefore you, along with the council, give notice to the tribune to bring him down to you, as though you were going to determine his case more exactly. And we are ready to kill him before he comes near.”

16.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Now the son of Paul's sister heard of their ambush, so he went and entered the barracks and told Paul.

17.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Paul called one of the centurions and said, “Take this young man to the tribune, for he has something to tell him.”

18.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So he took him and brought him to the tribune and said, “Paul the prisoner called me and asked me to bring this young man to you, as he has something to say to you.”

19.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The tribune took him by the hand, and going aside asked him privately, "What is it that you have to tell me?"

20.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데려오기를 당신에게 청하자 하였으니, And he said, "The Jews have agreed to ask you to bring Paul down to the council tomorrow, as though they were going to inquire somewhat more closely about him.

21.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사십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But do not be persuaded by them, for more than forty of their men are lying in ambush for him, who have bound themselves by an oath neither to eat nor drink till they have killed him. And now they are ready, waiting for your consent."

22.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So the tribune dismissed the young man, charging him, "Tell no one that you have informed me of these things."

23.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삼 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이백 명과 기병 칠십 명과 창병 이백 명을 준비하라" 하고,  
Then he called two of the centurions and said, "Get ready two hundred soldiers, with seventy horsemen and two hundred spearmen to go as far as Caesarea at the third hour of the night.

24.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Also provide mounts for Paul to ride and bring him safely to Felix the governor."

25.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And he wrote a letter to this effect:

26.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Claudius Lysias, to his Excellency the governor Felix, greetings.

27.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This man was seized by the Jews and was about to be killed by them when I came upon them with the soldiers and rescued him, having learned that he was a Roman citizen.

28.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And desiring to know the charge for which they were accusing him, I brought him down to their council.

29.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I found that he was being accused about questions of their law, but charged with nothing deserving death or imprisonment.

30.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And when it was disclosed to me that there would be a plot against the man, I sent him to you at once, ordering his accusers also to state before you what they have against him."

31.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So the soldiers, according to their instructions, took Paul and brought him by night to Antipatris.

32.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And on the next day they returned to the barracks, letting the horsemen go on with him.

33.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When they had come to Caesarea and delivered the letter to the governor, they presented Paul also before him.

34.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On reading the letter, he asked what province he was from. And when he learned that he was from Cilicia,

35. 이르되, "너르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he said, "I will give you a hearing when your accusers arrive." And he commanded him to be guarded in Herod's praetorium.

바울은 친구가 많았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는 바울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원수들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 원수들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를 설교합니다.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오늘 우리가 배웁니다. 본문을 묵상합니다.

12.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When it was day, the Jews made a plot and bound themselves by an oath neither to eat nor drink till they had killed Paul.

유대인들이 무리를 모아 맹세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서원한 것과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13. 이같이 동맹한 자가 사십여 명이더라.

There were more than forty who made this conspiracy.

이들 사십여 명이 어떤 자들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래, 유대인들은 바울을 공공의 적으로 인정하고

죽이려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14.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They went to the chief priests and elders and said, “We have strictly bound ourselves by an oath to taste no food till we have killed Paul.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자기들의 맹세 사실을 전합니다.

15.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Now therefore you, along with the council, give notice to the tribune to bring him down to you, as though you were going to determine his case more exactly. And we are ready to kill him before he comes near.”

그들은 공회가 천부장에게 청원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청문회를 다시 열자는 것인데, 그 와중에 바울이 이동할 때, 중간에서 살해하겠다는 것입니다.

16.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Now the son of Paul's sister heard of their ambush, so he went and entered the barracks and told Paul.

그런데 여기서 “도우미”가 등장합니다. 이번은 “바울의 생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식구 중 하나를 택하여 바울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생질은 바울에게 가할 테러행위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 생질이 바울에게 가서, 그 테러계획을 알렸습니다.

17.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Paul called one of the centurions and said, “Take this young man to the tribune, for he has something to tell him.”

바울이 지혜를 냈습니다. 그는 백부장 한 명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그의 생질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게 했습니다. 그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18.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So he took him and brought him to the tribune and said, “Paul the prisoner called me and asked me to bring this young man to you, as he has something to say to you.”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바울의 생질을 데리고 천부장에게 갔습니다.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바울이 부탁한 말을 전했습니다.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19.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The tribune took him by the hand, and going aside asked him privately, “What is it

that you have to tell me?"

천부장이 그를 조용히 만났습니다.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20.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데려오기를 당신에게 청하자 하였으니, And he said, "The Jews have agreed to ask you to bring Paul down to the council tomorrow, as though they were going to inquire somewhat more closely about him.

바울의 생질이 말했습니다.

1. 유대인들이 공모했습니다.
2. 바울에 대하여 자세한 것을 묻는 청문회를 요청하고,
3. 그가 공회에 나올 수 있게 당신에게 청하기로 했습니다.

21.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사십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But do not be persuaded by them, for more than forty of their men are lying in ambush for him, who have bound themselves by an oath neither to eat nor drink till they have killed him. And now they are ready, waiting for your consent."

당신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십시오. 그들 중에서 사십 명이 맹세하고 바울을 중간에 습격하여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허락하시면 즉시 실행할 것입니다.

22.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So the tribune dismissed the young man, charging him, "Tell no one that you have informed me of these things."

천부장이 바울의 생질을 보냈습니다. "내게 보고한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23.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삼 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이백 명과 기병 칠십 명과 창병 이백 명을 준비하라" 하고,

Then he called two of the centurions and said, "Get ready two hundred soldiers, with seventy horsemen and two hundred spearmen to go as far as Caesarea at the third hour of the night.

천부장은 백부장 둘을 불렀습니다. 밤 제 삼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과 기병, 그리고 창병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입니다. 모두 470명입니다. 이들이 밤 제3시, 곧 오늘 밤 9시에 출발하라고 했습니다. 가이사라까지 이동하는 것입니다.

24.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Also provide mounts for Paul to ride and bring him safely to Felix the governor."

그리고 총독 벨릭스에게 안전하게 보내도록 짐승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25.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And he wrote a letter to this effect:

게다가 천부장은 총독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26.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Claudius Lysias, to his Excellency the governor Felix, greetings.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천부장 자기 이름입니다.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합니다. 총독의 이름입니다.

27.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This man was seized by the Jews and was about to be killed by them when I came upon them with the soldiers and rescued him, having learned that he was a Roman citizen.

이 사람이. 바울을 지칭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바울은 지혜롭게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려서, 로마 군대를 통하여 유대인의 위협을 모면했습니다.

28.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And desiring to know the charge for which they were accusing him, I brought him down to their council.

천부장은 공회를 통하여 유대인이 무엇 때문에 바울을 고발하는지 살피는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29.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I found that he was being accused about questions of their law, but charged with nothing deserving death or imprisonment.

그런데 여기서 천부장은 바울에게 죽이거나 묶어 둘 사유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의 율법 문제가 전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공회 중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갈등 문제를 예리하게 파악하고, 서로 다투도록 유도했습니다.

바울은 과연 예수님의 제자 답게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였습니다.

30.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And when it was disclosed to me that there would be a plot against the man, I sent him to you at once, ordering his accusers also to state before you what they have against him."

천부장은 이 대목에서 바울의 생질이 밀고한 내용을 썼습니다. 1. 이 사람을 당신께 보냅니다. 그에게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2. 그를 고발하는 자들도 당신 앞에서 말할 기회를 주라 했습니다.

31.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So the soldiers, according to their instructions, took Paul and brought him by night to

Antipatris.

천부장의 명령대로 보병이 바울을 한밤중에 바울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안디바드리(Antipatris)에 도착했습니다.

32.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And on the next day they returned to the barracks, letting the horsemen go on with him.

이튿날 기병이 바울을 호송하게 지시했습니다. 천부장은 영내로 돌아갔습니다.

33.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When they had come to Caesarea and delivered the letter to the governor, they presented Paul also before him.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갔습니다.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했습니다.  
바울을 총독 앞에 세웠습니다.

34.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야 사람인 줄 알고  
On reading the letter, he asked what province he was from. And when he learned that he was from Cilicia,

총독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총독이 물었습니다: 어느 영지 사람이냐?  
바울이 길리기야 사람인 줄 파악했습니다.

35.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he said, "I will give you a hearing when your accusers arrive." And he commanded him to be guarded in Herod's praetorium.

총독은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거기서 네 말을 들으리라!" 했습니다.  
총독은 명령을 내려, 바울을 헤롯 궁에 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원수의 목전에서라도 상을 베푸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시편 Psalm 23:5

놀라운 것은, 원수들의 손을 통해서도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기 모세가 갈대상자에  
눕어져,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바로의 딸이 그를 건졌습니다.

유대인 중에 40명이 맹세하였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거나 마시지 않겠다는  
맹세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최악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십니다. 로마인의 손을 빌어 유대인의



위협에서 바울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큰 위협은 이방인들보다는 오히려 비슷한 신앙인들 중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에게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바울도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는 같은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슬람의 경우도 양상은 비슷합니다. 이슬람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코란을 추가하여, 구약과 신약이 코란으로 완성되어야 하는 불완전한 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예수님도 수많은 예언자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마호메트가 예언의 완결자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세례요한의 자리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자리에 마호메트가 있는 셈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슬람이 기독교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치열합니다.

이런 경우에, 오히려 제3자로 물러나 있는 "세상의 권세와 법정"이 오히려 교회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상의 권세는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애굽이나, 신약의 유대인에게서 로마처럼.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바울과 교회가 로마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과 교회를 구원하는 손길은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임을 내세웠지만, 결코 로마가 그를 구원할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When one of you has a grievance against another, does he dare go to law before the unrighteous instead of the saints?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6:1

보십시오. 바울을 로마에 고소한 것은 유대인, 곧 산헤드린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서 세운 것도 산헤드린 아니었습니까?

끝내 바울을 죽인 것은 "로마"의 권세였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려는 세력도 "로마"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의 앞잡이로 나선 것은 로마였습니다.

유대교의 경우,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유대교 안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갈라치기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바리새인 편"에 섰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회 앞에 선 그 순간,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지혜로써 저들을 서로 싸우게 한 전략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교와 로마 사이에 서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의 박해를 피하여 천부장의 보호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로마의 편에 섰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로마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앞잡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위기"를 극복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서는 바울에게 성령님의 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라도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이런 저런 송사 중에 나타난 바울의 "변명" 시리즈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변명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1. 산헤드린
2. 천부장
3. 벨릭스 총독
4.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

아슬아슬하지만, 바울은 끝내 "변명"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실상 그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그것이 놀랍게도 성공적인 변명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바울은 이렇게 "자기보호"를 추구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 원수들에게서 건져내실 것입니까?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4 변명 과정을 거쳐서, 바울은 5. 로마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 앞에 서야 했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The following night the Lord stood by him, and said: "Take courage, for as you have testified to the facts about me in Jerusalem, so you must testify also in Rome."

사도행전 Acts 23:11

두 번째 변명 이후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Do not be afraid, Paul. You must stand before Caesar. And behold, God has granted you all those who sail with you.

사도행전 Acts 27:24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중에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는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과 시험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막아선 원수들을 "홍해"바다처럼 갈라내어, 그 사이로 나아갈 길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유대인과 로마인 사이에 틈을 냈고, 유대인 공의회 사이에 틈을 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은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My Jesus, as Thous Wilt!  
찬송가 549장

아멘. Amen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칠전팔기!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For the righteous falls seven times and rises again. But the wicked stumble in times of calamity.

잠언 Proverbs 24:16

그렇습니다. 우리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 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What have I to ask beside? Can I doubt His tender mercy, Who thro' life has been my guide? Heavenly peace, divinest comfort, Here by faith in Him to dwell. For I know whatever befall me, Jesus doeth all the things well. For I know whatever befall me, Jesus doeth all things well. Amen.

찬송가 384장 1절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아멘.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나이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이 세상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주여, 저희가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까지, 저희와 늘 함께 하옵소서. 원수마귀의 계획에 말려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원수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